

한우 1마리에 1천 7백만원짜리 탄생!

한우개량부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사상 최고 가격에 경매된 한우가 탄생했다. 이번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전국 각지역에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88개 농가가 출품하였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전국한우협회에서 주최하고 농림부·농협중앙회가 후원을 하며 본 대회는 UR협상이 타결되던 1993년도에 첫회를 시작으로 하여 매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2001년 5회)

이번에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 한우를 키운 사람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홍재경(42세)씨가 키운 소로 브랜드명은 「양주골 한우」이다. 경매에 붙여진 이 한우는 생후 24.5개월에 생체중 630kg으로 지육은 360kg이고 1kg당 단가는 46,899원인데 소 1마리 가격이 무려 16,883,640 원으로 한우경매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실제 한우 1마리 경매가격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한우값의 2~3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평소 한우를 키우는

양축농가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평소가 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외국쇠고기와의 경쟁으로부터 한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이다. 또한 오천년을 이어온 한우를 지키려는 사육농가의 피나는 노력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본 대회의 행사는 소요되는 예산 중 정부보조 및 협회자금에서 일부 지원되며 참여농가가 나머지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일반 다른 축산대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한편 이번 대회기간 중에 경매된 출품한우를 고가로 사준 곳은 서울에서 한우음식점 운영하는 (주)벽제갈비(대표 김영환 : 55세)이며 고객을 위한 특별 판매행사로 쓰여질 계획이다.

벽제갈비는 서울에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중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일본에서도 1년에 3~4천명이 (주)벽제갈비를 찾고 있다. 일본의 TV, 언론매체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보도된 바 있고 지금도 일본 식육전문가들이 찾아와 벽제갈비에서 불고기와 갈비의 정통을 배우려고 노



력하고 있다.

광우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의 식육전문점들은 갑작스런 인기 폭락으로 매우 고심하고 있는데 벽제갈비에서는 3년전부터 일본시장에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맛있는 한우고기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는 11월 16일에도 일본의 식육전문인 30명이 벽제갈비를 방문해서 이곳의 경영 및 기술을 지도 받을 계획이다.

(주)벽제갈비(대표 김영환 : 55세)는 한우고기와 한국음식의 자랑스런 자존심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대련), 미국(네브라스카) 등에

도 한국음식홍보를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이라 하였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박순용 회장은 현재 한우사육농가들 가운데 고급육생산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은데 소를 잘 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농가의 사기昂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일본에서도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1억~3억원대에 화우고급육을 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본 대회는 한우농가에 고급육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일반육과 고급육과의 가격차별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전념할 것이다.